

‘우리말’ 표기 적합
의례춤 전격 수용



어현경 기자의
현장에서

eonaido@ibulgyo.com

얼마 전 종단에는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재가불자로서 또 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교수가 조계종이 최근 완성한 한글 의례의식에 대한 의견을 보내온 것이다. 편지에서 노교수는 종단이 한문으로 된 불교 의례의식문을 번역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표기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지의 요지는 종단이 현재 사용하는 한글반야심경, 한글전수경, 한글칠정례라는 표현보다 ‘우리말반야심경’처럼 우리말이라고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글은 말 그대로 ‘ㄱ, ㄴ, ㄷ’ 또는 ‘ㅏ, ㅑ, ㅓ, ㅕ’ 같은 자음과 모음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인이 쓰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의미로 쓰려면 한국어라는 표현이나, 우리 고유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었다.

노학자의 지적은 무심결에 한글의식문이라는 표현을 기사에 썼었던 기자에게 일침이 됐다. 편지를 받은 종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단 의례위원회가 이를 즉각 수용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지난 10월23일 열린 21차 회의에서 의례위원 향후 종단에서 발행하는 의례의식문을 우리말반야심경, 우리말전수경 등으로 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그동안 간과했던 것을 세심하게 짚어준 노교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한문일색의 불교전통의례의식문을 현대어로 바꾸는 일은 나침반 없이 항해에 나선 것만큼 힘든 일이다. 때문에 의례위원회는 의식문 공포 후에도 오류가 나오면 수정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덕분에 우리말 의례문의 표현은 쉽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하는 길에 ‘우리말 칠정례’가 아닌 ‘우리말예불문’으로까지 변화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일화대회 폐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승산스님의 제자들이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서원했다. 스승 승산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비롯한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제자들은 18개국 200여명에 이른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세계일화 가르침 전세계에 전하자”

승산스님 제자들 ‘10번째 모임’ 마치고 다시 18개국으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한 승산스님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현할 것을 서원하는 ‘제10회 세계일화대회’가 막을 내렸다. 국제관음승가과 계통 국제선원 무상사는 지난 10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0회 세계일화대회 폐막식을 거행했다.

세계 각지를 돌며 3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일화대회는 10월18일 본행사를 시작으로 이날 폐막식까지 10일 동안 승산행원대선사 10주기 추모다례, ‘참선수행과 직업’을 주제로 한 워크숍, 승산행원 선사 회고전, 한국 전통사찰 전시회, 성지순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승산스님 열반 10주기와 맞물려 함께 진행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슬로바키아 등 18개국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승산스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과 더불어 1700년 한국불교의 수행과 문화를 지구촌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펼쳐 세계일화를 꽃피우는데 조계종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승산스님의 재가상좌인 성왕 국제관음승가 대표선사는 “불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셔오다 깨졌던 일이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깨지고 말았네’라고 무덤덤하게 말씀하신 뒤 며칠 동안 본도로 불어가며 원상복구 하였던 일이 있었다”면서 “승산스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가르침대로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하나로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겠지만 부처님과 승산스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그 어려움 또한 수행을 위한 좋은 경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수행력과 좋은 기운을 갖고 고국으로 되돌아가 불법홍포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관음승가’는 승산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과 전법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개 국 100여개 선원과 소속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발
본교 현 총장 재선 가능

동국대 이사회, 후보추천규정 개정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스님)가 차기 총장 인선을 앞두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18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사회는 지난 10월28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286회 이사회를 열고 규정 제5조 7항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과 제12조 1항의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 제15조의 심사기간 및 추천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총장후보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또는 총장자격을 갖춘 교외 인사 외에 ‘본교 현직 총장’도 후보자가 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직원, 불교계,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

천을 받은 자’를 총장후보대상자 자격으로 명시한 현 규정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또 총장후보자를 선발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할 것을 명시한 내용도 삽입했다.

총동창회 등 추천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대표위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추천기관의 사정상 추천할 수 없을 때는 법인 이사장이 5일 이내 해당기구 또는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을 지명하거나 그 위원 수 만큼 공식으로 두고 총추위를 구성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 정련스님을 비롯해 영남스님, 일면스님, 성타스님, 삼보스님, 심경스님, 명신스님과 김희옥, 안재란 이사 등 9명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약대생들 학업에 도움 됐으면”

고양시약사회 외래교수들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고양시약사회 소속 외래교수들이 동국대 약학대학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고양시약사회의 최일혁 회장, 조기성 부회장, 강현철 사무국장은 지난 10월24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만나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최일혁 회장은 “동국대 약학대학은 신생 약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고양시약사회도 약학대학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마음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약학대학이 최고의 약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해주시 기부금은 약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정창근 경영부총장, 조정숙 약학대학장, 이무영 약학대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 10명을 합법적으로 원만히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직능선출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사퇴한 1명을 제외한 비구니 총회의원 9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비구니스님들이 10월 9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을 결성하고, 총회의원 후보 선출이 부당하니 이번 선출된 총회의원 전체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등 5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이후 기자회견과 불교계 매스컴을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하여 왜곡된 내용과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주장하는 사항들의 일부 개선방안은 본 임원진에서 이미 추진했거나 계획하고 있던 바이므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하여 가까이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 임원진과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취지가 같습니다. 다만 실천 방법론에서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있기에 서로 대화로써 원만히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제기한 5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그동안 운영위원장 선출은 관례적으로 회장스님이 지명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번에도 역시 그 방식과 과정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둘째, 총회의원 후보 선출의 건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76조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15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선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선위원회(9명: 회장, 수석부회장, 운영위원장, 수석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효성스님, 화원스님, 자원스님, 상용스님, 무진스님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비구니 총회의원 소임을 살았던 스님들은 모두 그 방식으로 선출되어 활동해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활동했던 스님들은 모두 부당한 자격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한 것이란 말입니까?

또한 교육분과를 뽑을 때, 그 분야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장은 바깥으로 나간 후, 수석부위원장이 임시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뽑았기 때문에 제척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15조 6항에서 총회의원 후보 연령을 ‘50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하고, 횡수도 재선까지로 제한한 조항은 종헌 중범에 명시된 비구니 총회의원 선거권 모법(母法) 조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국비구니회에서 2008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조항을 제정한 취지는, 전국 6천명 비구니스님들에게 종단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비구니 스님들이 3선에서 5선(12년~20년)까지 살다보니까, 다선으로 인한 전문성이 다소 향상되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젊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활동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제15대 비구니 총회의원 선출에서부터 이미 적용되어 왔습니다.

셋째, 비구니 총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건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왔으나 사실 너무 간단한 조항만 있습니다. 기실 그동안 직능직 비구 총회의원(20명)도 총회에서 9명의 간선위원을 뽑아 간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비구니 총회의원은 어른스님·운영위원의 후보자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위원을 추천하고 이 간선위원회에서 총회의원을 선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종단내 입법기구인 총회에서 조계종 6천명 비구니 스님들을 단 10명의 총회의원들이 대표하는 현실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위한 총회의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개인적 수행은 물론 바른 안목, 적극적 활동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출 전 공약발표, 운영위원들과 소통체계 구축, 총회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선출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선출공고, 후보선출 절차, 간선직 선출위원 선정기준 등 제반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회칙과 제도적인 시행규정 등을 논의하여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넷째, 참증권 확대와 비구니 권익향상을 위한 건

이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가사원 등에 비구니 국장스님을 참여시켜 왔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사 산중총회에서 말사주지 비구니 스님에 한하여 투표를 주던 것을 비구니 스님 몫을 20%로 확대하는 패기도 올렸습니다.

또한 중앙총회의 법규위원 자격을 ‘법리에 밝은 비구’에서 ‘법리에 밝은 승려’로 바꿈으로써 비구니 스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중앙총회의 초심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선출 문제는 그 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과 더불어, 총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의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다. 하지만 종헌중범의 선거가 비밀투표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직 열세로 인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비구 가석 : 비구니 10석)

이러한 사안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총회의원 스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공동체 내부의 투명한 상호소통 문제의 건

금년 1월에 운영위원장 소임을 맡은 후, 전국비구니회 발전과 공동체의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3월 27일 제13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비구니회 사업의 활동방안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브리핑하고, 이어서 각 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스님들의 지켜야 할 의무에 운영회비, 기부금도 중요하지만, 회관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권한도 상승시켜야 한다는 회장스님을 비롯한 임원진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위원 스님들에게 총회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원진 스님들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의 12개 지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그 내용들을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

고 발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서신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다만, 강원지회만은 그 지회의 사정으로 인해 간담회를 갖지 못했으나, 다른 지회들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7월 16일 제 1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각 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한 결과, 운영위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발전 기부금이 2억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문제점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선출의 당락이 있는 곳에서는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운영위원 스님 다수가 불만을 품어왔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번 ‘열린비구니모임(가칭)’에 동참한 스님 중에서 운영위원 스님은 5명 운영위원 가운데 5명 정도도 평소 운영위원회에 참석도 잘 하지 않았습다.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는 갖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에서 일방적 언론 플레이를 통한 성명서와 임시총회 요구를, 어찌하여 총회의원 선출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전국비구니회장 선임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거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회장스님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화로 풀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납니다.

앞으로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이나 우편 혹은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질의응답 혹은 제안의 창구’를 상설하여 비구니 스님들의 공의가 반영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전국비구니회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성명서를 통한 제방 비구니 스님들의 요구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섭렵하여 반영함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해나가는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일동